

●●● 이홍재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의장

존중과 협의가 필요한 시기



▲ 이홍재 의장

자랑스러운 업을 위해

이홍재 의장은 15년전 당진에서 1만4천수로 육계업을 시작하였다. 육계업을 하면서 여러 번의 고충이 있었지만 그는 술선수범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섰다.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폭설피해, 인체감염보도 등 양계산업이 고통을 겪을 당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난 4월 20일은 농협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는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 총 109표 중 찬성 85표, 반대 24표로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조금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날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이홍재 대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앞으로 육계자조금 진행과정에서 양계인의 일익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 이홍재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육계자조금의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것도 아니지만 육계인 모두를 위해 뛰어다녔다. 그는 이것이 결국 내 자신도 위하는 일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육계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에서부터 비롯한다. 자식에게 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육계산업이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말한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대의원회 뜻 존중되길

이홍재 의장은 이제는 대의원 총회가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의원 총회에서 문제시 되었던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안)을 부결시키고 대의원들이 재선출한 것에 대해 그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조금은 생산자가 거출하여 산업활성화에 쓰이는 만큼 생산자인 대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의 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총회 이전에 준비위원회와 대의원회가 협의가 있었다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이 존재 했을텐데라고 아쉬움도 보였지만 총회에서 결과가 도출된 만큼 대의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자조금 활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관리위원 위촉시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고 부결시 대의원회가 의견을 모아 재선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상호의견이 존중되며 동시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대의원들과 준비위원회간의 논쟁보다 협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번의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난관들을 나누면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예전부터 육계농가들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으며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한다. 다만 기존에 준비가 됐다면 목소리가 훈련되고 순화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지만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육계산업의 현안에 대한 불만들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대의원회가 첫 자리였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조율해 나가야 함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계열농가들의 어려움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오랫동안 묻어두기만 한다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조금은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산자가 주체라는 것과 자조금은 자조금만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의원들의 책무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계열화 산업으로 변화로 인해 서로간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계열산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의 크기를 확장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업적인 논리가 앞서다 보니 사육자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보다 개선된 관계로 발전되어 사육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도록 나아가 수 있기를 바랐다.

발전을 위해서

그는 관리위원들과 3개 단체(농협,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가 자리를 함께해 서로간의 문제점을 나누면서 협의를 통해 자조금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들은 지난 8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협상대표단(이홍재, 최길영, 김의점)을 구성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준비위원회와 자리를 함께해 관리위원 위촉건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6월 대의원 총회 개최시 예산안이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축산단체와의 뜻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것이 자조금의 순항을 위한 첫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며 본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정리 | 기영훈 기자)